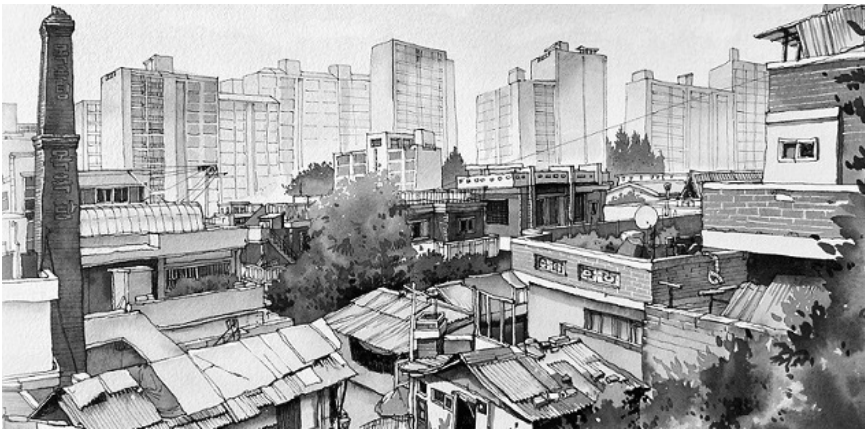




작품이 된 우리 동네 풍경

동대전도서관 27일까지 어반스케치 전시회

동대전도서관은 27일까지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도서관입니다’ 어반스케치 전시회를 연다.

전시에선 도서관 인근 가양동·성남동·소제동 골목과 일상 풍경을 주제로 김소형, 조현화 작가가 그린 어반스케치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변화와 시간이 공존하는 지역의 정서를 담은 그림들은 평범한 거리 풍경 속 특별한 예술적으로 풀어내 주목을 끈다.

다. 또 전시 공간에는 지역을 배경으로 한 추천 도서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들이 그림과 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전시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골목을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하는 기회다. 예술과 책이 어우러진 전시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다시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반딧불이 4만 마리 만난다

11~8월 3일 대전곤충생태관 무료 체험행사

대전시가 11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도심 속 생태체험 행사 대전곤충생태관 반딧불이 불빛체험을 운영한다. 체험행사는 곤충생태관에서 직접 번식·사육한 약 4만 마리의 애반딧불이를 활용한 전시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관람은 무료로 평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선착순 입장, 주말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입장권 소지자만 체험할 수 있다. 주말 입장권은 당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현장에서 배부된다.

시는 체험행사를 지역 관광과 연계한 숙박형 프로그램과 결합해 운영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과학 체험과 캠핑을 접목한 사이언스 나이트 캠프, 민간 정원 여행과 팜스테이 숙박을 결합한 대전 공경관광 프로그램(예술가와 의 정원여행·반딧불이 체험) 등이 있다.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도심에서 반딧불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작은 생명에서 시작되는 생태의 신비와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동구 어린이물놀이장 5곳 24일 개장

대전 동구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어린이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올해 개장하는 물놀이장은 가오근린공원, 용수골어린이공원, 상소동산림욕장, 성남다목적체육관, 동산어린이공원 등 5곳이다. 영유아 및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구는 에어컨 힐링쉼터 등 휴식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슬라이드와 에어폴장

등 물놀이 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3시,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 등 3회차다. 각 회차 종료 후에는 수질 관리와 안전 점검을 위해 전원 퇴장 후 재입장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이다. 김현호 기자

건양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최초 의료영상 온라인 발급

(주)헬스허브와 솔루션 도입 계약

건양대학교병원이 8일 (주)헬스허브와 의료영상 온라인 발급 시스템인 HScan 솔루션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본격적인 의료영상 제증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K-Health 국민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비스 개시에 따라 환자는 병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영상을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김용석 건양대병원 의료정보원장(왼쪽 세 번째)이 김종업 의생명연구원장(왼쪽 두 번째), 김기풍 헬스허브 대표이사(왼쪽 네 번째)와 HScan 솔루션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건양대병원 제공

발급받을 수 있다. 건양대병원은 지난 해부터 영상의학과와 전산팀, 원무팀 간 협업을 통해 원내 환경에 맞춘 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을 마쳤다.

김용석 의료정보원장은 “건양대병

원이 디지털 진료정보 교류의 중심 기관으로서 대전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KAIST 최문정 교수, UN 산하 ITU 자문위원 선임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자문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최문정(사진) 교수가 유엔(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AI 포 굿 글로벌 서밋(AI for Good Global Summit)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8일 KAIST에 따르면 ITU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UN 전문기구로 전 세계 ICT 정책과 표준을 조율하는 핵심 기관이고 최 교수가 속한 위원회는 인공지능(AI)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AI 포 굿 글로벌 서밋은 8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며 ITU가 주관하고 40여 UN 산하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AI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AI 활용 사례 발굴, 국제적 정책 및 기술 표준 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최 교수는 이번 서밋에서 세계 각국의 AI 활용 사례를 평가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석에 참여한다.

이기준 기자



선양소주가 8일 대전시청에서 (재)대전청년내일재단에 ‘대전사랑 장학기금’을 전달한 가운데 김규식 선양소주 사장(왼쪽)과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권형례 대전청년내일재단 대표이사(가운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양소주 제공

(주)선양소주 ‘지역사랑 장학캠페인’ 누적 기부액 9억 돌파

대전사랑장학기금 7188만원 전달

(주)선양소주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기부하는 ‘지역사랑 장학캠페인’ 누적 장학기부액이 9억 원을 돌파했다.

선양소주는 8일 대전시청에서 (재)대전청년내일재단(이사장 이장우)에 ‘대전사랑 장학기금’ 7188만 6600원을 전달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지역사랑 장학캠페인’은 ‘선양’과 ‘선양린’ 소주 한 병당 5원씩 적립하는 형식으로, 10년간 40억 원을 목표로 한다. 이번 기탁을 포함한 누적 기부액은 총 9억 1085만 4560원에 달한다.

기탁금은 대전시(2112만 1265원)와 대전 5개 자치구(5076만 5335원)에 균등 분할돼 지역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선양소주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세종과 충남 각 시·군에 장학금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기업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된다”며 “대전의 미래세대가 대전을 사랑하고 꿈꾸고 도전하도록 지역인재육성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주)선양소주 김규식 사장은 “우리 소주를 마시는 선택이 단지 소비를 넘어, 누군가의 미래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대전 선치과병원 AI 챗봇 도입

대전 선치과병원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상담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도입되는 챗봇은 자연어 처리(NLP)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 전후 주의사항, 보험 적용 여부, 시술 기간, 통증 등 자주 묻는 질문은 물론 비정형 질문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선치과병원은 챗봇이 이용자의 질문을 추적·분석해 스스로 답변의 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준섭 기자

충남교육청 15~16일 대입정보박람회

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은 15일과 16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2026 충남대입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대학상담관, 교사상담관, 모의면접관, 특강관, 학교체험관 등 5개 주제관으로 운영돼 도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에 맞는 상담, 면접, 체험, 특강 등의 활동을 통해 진로진학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상담관은 충청권 및 수도권 주요 대학 107개교가 참여해 2026학년도 수시모집과 2027~2028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입학사정관과의 개인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포=이석호 기자

대전교육청 하나드림스쿨 운영 시작

대전시교육청이 8일 대전동화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관내 초·중학교 13개교의 교육취약학생과 학급 친구들 400명을 대상으로 축구선수와 함께하는 ‘하나드림스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하나시티즌과 협약을 통해 축구선수와 함께하는 스포츠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축구선수에 대한 꿈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학교에서 진행되던 활동을 대전하나시티즌 구단 초청으로 대전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경기장 내에 있는 실내연습장에서 축구 기본기 훈련, 미니 축구시합 등 축구 클리닉 활동으로 진행되며 경기장 내부 공간인 그라운드, 선수 로커룸, 인터뷰룸 등을 탐방한다. 조길상 기자

‘원도심 보물찾기’ 올해도 인기몰이 예고

대전0시축제 핵심 프로그램
참신·다양한 체험 출격 대기

대전0시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원도심 보물찾기’가 올해도 진행된다. 대전시사회혁신센터는 8일 혁신센터에서 8명의 로컬 크리에이터와 보물찾기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정된 크리에이터는 벽걸이 시계 및 에코백 만들기, 전통 동동주 빚기, 꿈돌이 스티커 크로플과 청귤청 레몬에이드 만들기, 대전 상

징물 레진공예, 호롱불 만들기, 대형 터프팅 체험, 부채 및 손수건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나만의 대전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돕는다. 이와 함께 대전예술고등학교는 재능기부로 행사에 참여해 다채로움을 더한다. 학생은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페이스 페인팅과 유리 풍경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이들의 작품은 8월 8~18일 혁신센터 내 복도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김현호 기자 kh0303@ggilbo.com